

상에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등 여러 항목에 걸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통계를 위해 마련한 “정보통신산업” 특수목적분류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및 제작 및 검색 서비스” 등 여러 항목에 걸쳐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서적, 신문, 영화, 음반 등 전통적인 콘텐츠산업 전영역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기존의 콘텐츠산업을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UN의 ISIC 개정안과 OECD의 Content Sector 분류(안)을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 분류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1] OECD(2006a), “The OECD ICT Sector Definition Review: Proposal for Revised Definition Based on ISIC Rev 4”
- [2] _____(2006b), “ICT Sector Definition”, Presentation for 10th Meeting of the WPIIS OECD, Paris, 3-4 May 2006
- [3] 강희일(2002), “세계 정보통신 산업분류 동향분석”, 『주간기술동향』, 2002. 7. 18
- [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4), 『디지털콘텐츠산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주요국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동향

통신방송연구실 책임연구원 김봉식
(T.570-4276, bskm@kisdi.re.kr)

1. 개 요

2003년 6월 국내 시내전화시장에 번호이동성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3년을 경과하고 있다. 2005년 유선전화시장에 경쟁서비스로서 인터넷전화도 도입되어 새로운 경쟁구도가 정착되고 있으나, 경쟁서비스로서 아직은 기존 음성전화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음성전화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한 축에서 이용자 편익 및 시장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번호이동성이제도 또한 한 몫을 하리라 여겨진다.

최근 국내 번호이동성제도는 대체로 크고 작은 이슈들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에 관한 현황 등을 살펴봄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다양한 관심이슈의 연구나 분석은 차체에 미루고 본 고에서는 최근 해외 몇몇 주요국의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일반에 대해 논고 없이 객관적인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주요국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동향

가. 영 국

영국은 1993년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여러 종류의 기술방식(비지능망, 지능망 방식)을 검토한 후, 1995년 비지능망(Onward Routing) 방식으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02년 번호이동성 기술방식에 대한 대체 방식이 거론되어 비지능망 기술방식의 효율성, 고장 여부 및 신뢰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능망방식인 ACQ(All Call Query) 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2005년 Ofcom이 중앙 D/B와 지능망 기술방식으로의 변경은 비용 문제 및 NGN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경우 어렵다고 평가하고 논의를 유보하기도 하였다.

시내전화시장은 2004년말 현재 BT가 약 64%, 케이블사업자인 NTL&Telewest가 약 1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다수가 존재하나 시장점유율은 대체로 미미한 수준이다. 유선전화 개별가입자(주거이용자) 중 77%는 번호이동 경험이 없는데 이는 사업자 변경에 드는 시간 및 비용 등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이용자들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번호이동처리시간은 5~25일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입자전환율은 약 2% 내외이다. 또한 영국은 번호이동에 대한 가입자 방어활동이 허용되어 변경전사업자와 변경후사업자가 신규가입자에 대해 각각 1회씩의 방어활동(Demarketing)이 가능하다.

나. 스웨덴

스웨덴은 1999년 4월 RCF(Remote Call Forwarding)방식으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 9월부터는 사업자 여건에 따라 지능망방식인 ACQ(All Call Query) 또는 비지능망 방식인 OR(=RCF)을 선택 사용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능망방식을 위해 5대 통신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번호이동관리센터(SNPAC, Swedish Number Portability Administrative Center)에 중앙DB(Central reference database)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투자비용은 각사부담 원칙이며, 등록비용 등 운영비용은 가입자를 받아들이는 사업자에게 협의에 따라 전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회성 비용(one time cost)은 최종 착신사업자가

발신사업자에게 지불하는데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가능하다. 번호이동수수료는 번호를 넘겨 주는 사업자(donor)가 받는 사업자(recipient)에게 부과하며, donor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부과 하지 못하고 recipient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의 경우 일회성 비용 및 매월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전환율은 약 5.6%(32만/570만)이며, 제도 도입초기 1회성비용이 과도하게 책정(720SEK=93,600원)되어 LNP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PTS¹⁾에서는 가입자 전환신청 비용을 낮추도록 조정할 예정이며, 2006년 7월부터는 50~60SEK(6,500~7,800원: 계획중이며, 확정치는 아님)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번호이동처리시간은 현행 15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다. 싱가포르

2000년 4월 QoR방식으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그러나 번호이동 전환율이 1% 이내로 활성화 되어있지는 못하다. 시내전화 경쟁구도는 선발사업자인 Sing-Tel이 Fixed Line Market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사업자이며, 후발사업자인 Star-Hub는 Cable TV와 번들상품을 통해 번호이동성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사업자간 비용분담은 비용최소화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자사의 System setup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QoR 방식이므로 추가전송구간비용(additional conveyance costs)은 없다.

번호이동수수료 체계는 사업자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하고 있는데 SingTel에서 StarHub로 이동할 경우, 일회성비용으로 S\$ 8/건(≒4,800원)을 매월 S\$8.4/월(≒5,04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반대로 StarHub에서 SingTel로 이동할 경우, 일회성비용으로 S\$21/건(≒12,600원)을 매월 S\$10.50/월(≒6,3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번호이동사업자간 수수료 대가 정산을 위해 변경후사업자가 변경전사업자에게 S\$4.32(≒2,892원)에서 S\$19.84(≒11,904원)까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현행 번호이동처리시간은 Working Day 기준으로 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라. 홍콩

홍콩의 시내전화시장에는 현재 7개의 시내전화사업자가 있으며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PCCW 70%, WharfT&T 9%, Hutchison 9%, Hongkong BroadBand 9%, 기타(New World, CM Tel, HKC Network) 등으로 시내전화 보급률은 55%에 이른다.

1) Post & TeleStyrelsen의 약어로 1992년 설립되어 스웨덴의 전자통신(정보통신, IT 및 주파수 등)과 우정부문을 관리 감독하는 규제기관이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은 3개의 시내전화 사업자간 서비스를 하고 있던 1995년 7월 비지능망 RCF방식으로 LNP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1997년 1월 Distributed Database Method(ACQ)방식으로 기술방식을 전환하였다. 한편 홍콩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인데 2005년말 기준으로 번호이동가입자는 약 135만(번호이동율 35.5%)에 이른다. 비용분담과 관련해서는 자사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자사가 부담하였으며, 가입자회선비용(per line set-up costs)으로 1회에 한해 57HK \$(7,125원)를 부과하고 있다. 번호이동개통을 위해서는 약 7일(calendar day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

3. 결 어

앞서 살펴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작게는 5년 많게는 10년의 기간을 앞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유럽의 경우는 EU Directive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번호이동성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유럽이외 지역의 국가들도 국제원고나 기타 각국 규제기관의 법근거 하에 번호이동성제도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실시시기는 시내전화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으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사례가 되었다. 시내전화의 경우도 비지능망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성 성과측면에서 효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용자편의 및 경쟁활성화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을 위한 논의 및 제도 정비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국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번호이동성제도의 추세는 유무선간 번호이동성 및 번호이동성 개념 확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서비스 등장, 유무선 대체, 컨버전스 등의 영향에 따라 번호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고, 유무선간 번호이동성은 이미 미국과 덴마크가 시행중이며, 영국, 스웨덴 등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음성전화는 인터넷 및 데이터통신시장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고정적인 수입원으로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은 국내외에서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유선부문 및 유무선통신부문의 통합 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 관련번호이동성제도 자체도 변모되고 더욱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번호이동성제도를 통한 편익제고 및 경쟁구도 확립 등 이용자와 시장에 동시에 효율적인 동제도의 정비를 위해 정부 및 사업자 등이 공동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OFCOM, "Ofcom response to a questionnaire from a Korean delegation on LNP", 2006. 3
- [2] PTS, "Number Portability in Sweden", 2006. 4
- [3] ____, "Regulation &NP", 2006. 4
- [4] IDA, "Fixed Number Portability", 2006. 4
- [5] OFTA, "Operator Number Portability in Hong Kong", 2006. 4

주요 MSO의 2005년 실적 개요

통신방송연구실 주임연구원 권영주
(T. 570-4164, milip@kisdi.re.kr)

2006년 4월 6일, CJ 케이블넷의 2005 회계년도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4월 13일 태광산업 계열 티브로드 ABC의 실적보고가 나타나는 등 주요 MSO의 실적이 발표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2005년 6월 MSO 가입대수 기준 점유율 순의 주요 MSO는 1) 태광산업계열, 2) CMB 및 3) 씨엔엠이며, 2004년말 매출액을 기준 주요 MSO는 1) 태광산업계열, 2) 씨엔엠, 3) CJ 케이블넷 등이다.

〈표 1〉 2005년 6월 기준 MSO 현황 및 시장 점유율

구 분	SO수	가입대수	점유율(%)	'04매출액(백만원)	점유율(%)
태광산업	22	2,951,782	21.9	280,540	20.8
CMB	17	1,668,907	12.4	115,357	8.6
씨엔엠	17	1,642,784	12.2	234,232	17.4
CJ케이블넷	8	1,076,295	8.0	121,467	9.0
현대백화점	8	868,269	6.4	73,735	5.5